

아시아 인권운동가 ‘5·18 정신계승’ 선포

亞인권현장 선포 20주년에 보조현장도 발표
내달 ‘광주선언문’ 채택...새 시대 상황 반영

아시아 각국 인권운동가들이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광주선언문’을 선포한다.
5·18기념재단은 다음달 16~17일 이틀간 광주에서 열리는 아시아인권현장(Asian Human Rights Charter) 20주년 기념행사에서 광주선언문을 채택한다고 22일 밝혔다.
바실 페르난도 전 아시아인권위원장 이 다음달 16일 개회식 포럼 기조 발표자로 나서 ‘광주선언문’ 본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광주선언문은 민주·인권·평화로 대표

되는 1980년 5월 광주항쟁 정신이 오늘날 아시아 인권활동에 기여한 점을 담는다.
5·18 정신을 밑바탕에 깔아 1998년 선포한 아시아인권현장과 별도로 광주항쟁 의의도 부각한다.
선포식에는 아시아 각국 인권활동가, 광주인권상 수상자, 인권연구자, 해외에서 5·18 연대활동을 펼친 동료 등 160여 명이 참석한다.
아시아 각국 인권활동가들은 아시아 인권현장 보조현장도 함께 발표한다.
광주에서 아시아인권현장을 선언한 20주년을 기념해 보조현장에 새로운 시

대정신을 반영한다. 3개 현장으로 구성된 보조현장은 정의권, 문화권, 평화권 등 세 가지 권리를 보장한다.
5·18재단과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협약을 맺어 보조현장 선포 실무에 착수했다.
지난 2월에는 네팔 카트만두에서 기초위원회를 열어 기본안을 번역하고 돌려 읽었다.
지난달에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 본부회의장에서 세미나를 열어 보조현장 채택이 지닌 의미를 세계에 알렸다.
5·18 18주기에 광주에서 선포한 아시아 인권현장은 유엔세계인권선언이 미처 담지 못한 아시아적 특수상황을 반영하고, 억압받는 아시아 민중의 권리와 사회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5·18재단 관계자는 “5·18정신은 1998

년 인권현장 선포 이후에도 아시아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며 “각국 인권활동가는 이를 규정한 광주선언문과 새로운 현장 상황을 담아낸 보조현장 채택 필요성에 공감하고 동참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광주아시아포럼에는 바실 페르난도 아시아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수실 파쿠렐, 아딜루 라만 칸, 스리프라파, 크리스 비안토로씨 등 아시아인권현장 보조현장 초안작성 과정을 담당했던 기초위원회 위원들과 특별초청자 마사 한틀리(고 한틀리 목사 부인), 바바라 피터슨(고 피터슨 목사 부인), 이종현 한민족 유림연대 상임자문위원, 설갑수 광주다이어리(너머너머 영역본 번역자) 집필자 등 특별초청자들이 참석한 다.

/임후성 기자 uyear@kjdaily.com



신록의 푸르름을 앵글에 담다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사진인들의 대축제 ‘제67회 광주신록전국사진촬영대회’가 22일 광주 운암동 중외공원 일원에서 한국사협 임원과 각지역 지부장, 초청 인사 등 전국의 사진동호인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시지회(지회장 선중백) 주최로 열린 이날 촬영대회에서 동호인들이 철쭉을 배경으로 여인의 아름다움을 앵글에 담고 있다.

/김영근 기자 kyg@kjdaily.com

전남대 로스쿨 졸업 79.8% 변호사 취득

법무부, 학교별 합격률 첫 공개...평균은 83.1%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남대 로스쿨 졸업생 100명 중 79.8명이 변호사자격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25개 로스쿨 평균(83.1%)에는 약간 못 미친 수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타 지역 거점 대학 로스쿨에 대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2일 제1회~제7회 변호사시

험 학교별 누적 합격률을 공개하면서 전국 25개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누적 합격률이 83.1%였다고 밝혔다.
합격률은 학교별로 로스쿨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응시자 중에서 변호사시험에 실제 합격한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따진 수치다. 그간의 7회 시험 동안 누적합격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연세대로 94.02%였다. 졸업생 100명 중 94

명이 변호사가 됐다는 의미다.
서울대가 93.53%로 근소한 차로 뒤를 이었고 고려대는 92.39%였다. 아주대가 91.90%, 성균관대가 90.43%로 90%가 넘는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80%대에서는 경희대 87.94%, 인하대 87.54%, 한양대 87.27%, 서강대 87.22%, 이화여대 87.18%, 중앙대 87.09%, 영남대 86.71%, 한국외대 86.32%, 서울시립대 84.80% 순이었다.
70%대는 전남대가 79.8%로 가장 높

았고 경북대 77.55%, 부산대 77.26%, 충남대 75.69%, 강원대 75.68%, 충북대 72.87%가 이름을 올렸다.
최하위권은 전북대(69.62%), 동아대(67.82%), 제주대(67.78%), 원광대(62.6%)가 차지했다. 이들 로스쿨은 수료생 10명 중 3~4명이 변호사가 되지 못한 셈이다.
학교별 합격률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이 최근 서울고법에서 변형 승소로 확정된 결과다.
이번 합격률 공개에 따라 로스쿨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로스쿨별 서열화, 하위 로스쿨 통제할 등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엇갈린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오늘의 날씨

▶별제 지역 날씨 최저/최고/기온

춘천 8/10

강릉 8/10

도곡 11/12

부산 13/14

여수 12/14

제주 18/22

목포 14/18

흑산도 12/15

전주 15/17

광주 14/18

대전 11/13

대구 11/13

서울 10/11

인천 11/12

생활정보지수

나들이 30

우산 챙기세요

빨래 20

잘 마르지 않아요

세차 20

다음으로 미루세요

운동 20

운동하기 좋지 않아요

지역	강수량(%)	지역	만조	간조
광주	90~70	목포	07:53 00:07	20:06 13:13
목포	90~70			
순천	90~70	여수	02:37 09:00	15:11 21:19
여수	90~70			

서해 남부 (풍랑/파고)

오전 앞바다 동-남동/0.5~1.5m
면바다 남동-남/1.0~2.5m

오후 앞바다 남동-남/0.5~0.1m
면바다 남동-남/1.0~2.5m

남해 서부 (풍랑/파고)

오전 앞바다 동-남동/0.5~2.0m
면바다 동-남동/2.0~3.0m

오후 앞바다 동-남동/0.5~2.0m
면바다 남동-남/2.0~3.0m

주간날씨

전라(광주) 서울경기(서울) 강원영동(강릉) 충청(대전) 경상(대구) 제주(제주)

8월 8/화 (15/18) (15/15) (9/10) (11/14) (12/15) (16/17)

9/수 (9/21) (9/20) (9/16) (6/19) (8/21) (11/16)

10/목 (9/21) (10/21) (10/21) (8/21) (9/22) (11/18)

▶날씨안내 : 국민여의131

광주·전남 내일까지 비 내린 뒤 기온 ‘뚝’

광주·전남지역에 오는 24일까지 비가 내린 뒤 이번 주 비교적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2일 “광주·전남 지역은 이날부터 24일 오후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비의 영향으로 지난 주 29도까지 치솟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다”고 예보했다.
사흘간 예상 강수량은 30~80mm이며,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100mm 이상 내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광주·전남 기온은 11~19도로 전

날에 비해 5도 가량 낮겠다. 비가 이어지는 24일에는 전날과 기온차의 변화가 크지 않겠다. 광주는 23일 14~18도, 24일 15~18도다.
기상청은 비가 그친 25일부터 29일까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고 내다봤다.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6~13도, 최고기온 19~23도)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된다. 광주는 25일 9~21도, 26일 9~21도, 27일 11~20도, 28일 10~25도, 29일 12~25도다.

/임후성 기자 uyear@kjdaily.com

평양과기대-전남대 상호 협력 방안 논의

평양과학기술대와 전남대가 농생명·치의학·공학 등의 분야에 서로 협력키로 했다.
22일 전남대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지난 20일 전남대에서 정병석 총장과 전유택 평양과학기술대 총장이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대학 총장은 먼저 농업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신기술 복합농업단지’를 평양에 조성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방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

를 나눴다.
복합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인도적 지원을 넘어 북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화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다.
평양과기대 전 총장은 전남대가 북한의 열악한 농생명, 치의학, 공학 분야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남대 정 총장은 “필요사항은 각 분야별로 구체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5·18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7주년 기념 포럼

5·18 진상규명, 성공적 실현 방안은?

■ 일시 : 2018년 4월 25일(수)오후3시 ■ 장소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다목적 강당

“5·18 진상규명, 완성품 조사에 이르려면...”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포럼은 각계 전문가들이 5·18특별법 시행령 제정 방향과 5·18진상 규명활동의 성과를 좌우하는 규명위원회 위원의 적임자 선정 방안과 역할 등을 제시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포럼에 광주 시민과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제발표

• 5·18조사위의 역할 및 적임자 선정방안(염규홍 전북교육청 인권옹호관)

• 5·18특별법 시행령 이렇게 만들어야(정준호 광주민주화운동동지회 공동대표)

• 군 문서처리체계의 이해(신동일 광주국제교류센터 이사)

• 광주현지합의안,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오성수 광주매일신문 편집국장)

■ 사회 및 토론

△좌장=김 성 2017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저자

△최용주 5·18기념재단 비상임연구원

△조진대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주 최 |

광주매일신문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문 의 |

광주매일신문 기획실 062)650-2007

CMYK